

##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연구\*

박 윤 선<sup>†</sup>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중, 고등학생 502명으로 청소년용 대인불안 척도,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중다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이 여학생의 경우 감독, 방임이 수치심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치심 경향성이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 여학생 모두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비일관성과 방임,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만이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비일관성과 대인불안 간의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방임과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은 완전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원인론적 기여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는 남녀 청소년 각각에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 대인불안, 수치심 경향성

\* 본 논문은 채규만의 지도로 이뤄진 박윤선(2007)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윤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도 3가 249-1,

Tel : 02-920-7114 E-mail : sunset0101@hanmail.net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시점으로 변화의 중심에서 사회 생활에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습득하고 찾아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의식, 자아정체감의 형성 등 심리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자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또래집단에서의 대인관계는 청소년이 수행하여야 할 여러 발달 과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 경험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시기에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불안과 긴장감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심하게 두려워한다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고 성인기로까지 문제가 지속된다면 점에서 청소년기의 대인불안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사회불안이 발생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사회공포증은 유전적 요소를 포함한 개인의 행동 억제 기질(Biederman, Hirshfeld-Becker, Rosenbaum, Herot, Friedman, Snidman, Kagan, Reznick, & Snidman, 1987), 부모 양육 행동을 포함한 가족 환경(Bruch, 1989; Rapee, 1997), 외상적 경험(Stemberger, Turner, Beidel, & Calhoun, 1995), 또래 관계(Beidel, Turner, & Morris, 1999), 그리고 사회인지 과정(Chorpita & Barlow, 1998) 등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현 혹은 유지 및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오윤희, 2005). 이와 같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지속에는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환경적 요인 가운데에는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갖게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증명된 적이 있다(서경현 2007; 허재홍, 2006;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Parker, 1979).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외적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사

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보여주는 어렵다(장혜인, 2003). 따라서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을 겪을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직접적인 원인 변수로 볼 수 없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개입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결과들도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허재홍, 2006; 오경자 & 양윤란, 2003).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매개 또는 중재하는 변인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재홍(2006)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외상경험은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숙(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사회불안에 모두 영향력을 가지는데 아버지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독립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요인이 자의식과 자기개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희(2006)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일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변인의 매개효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자녀가 부모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Atangier & Fydrich(2002)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경험하는 개인들이 주요 감정적 증상으로 과도한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취약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수치심'이 총체적인 자기(self)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정서적 특성으로, 사회불안의 인지, 행동적 측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정서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쳐 사회

적 관계에서의 개인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김혜민, 2008). Pulakos(1996)와 Abell, Gecas(1997) 연구에서 역기능적인 가정환경과 수치심의 높은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줍음이나 수치심의 경험이 사회불안의 인지, 행동적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Buss, 1980; Pilkonis, 1977; Watson & Friend, 1969;)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서적 취약 요인으로써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Lewis(1992)는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때 실패의 결과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라고 하였다. 즉 수치심은 자신이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작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정서이며(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반면에 Lewis(1971b)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수치심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른데, 이러한 개인차를 수치심 경향성이라고 하였으며 Andrews(1998)은 수치심이 경험되는 민감성과 강도, 빈도가 높은 사람을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수치심의 경험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수치심 경향성과 수치심의 개념은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다루어져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두 용어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하였다.

최근에 수치심과 다른 정서 혹은 정신병리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Murray & Waller, 2002; Murray, Waller, & Legg, 2000; Tangney, Wagner, & Gramzow, 1992b). 국내에서도 수치심과 우울, 죄책감, 섭식장애, 행동문제, 편집증, 완벽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불안 등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김영석, 2008, 김민경, 2008; 백주현, 2007, 전철은, 2002, 심종은, 이영호, 2000; 조효진, 2009).

수치심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존재가 가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정서라고 하였다(scheff, 1988). Piers, G., & Singer, M (1971)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핍 상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버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고,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 정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다. Sullivan(1953b)은 불안은 그것 자체로도 인식될 뿐 아니라 당황, 수치심, 창피, 죄책감 등과 같이 특별히 유아기의 훈련과정 중에 형성된 복합적인 감정의 경험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면서 불안의 기원을 대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치심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Buss(1980)는 수치심과 사회불안간의 이론적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회피 경향성이 전형적으로 수줍음의 내적 경험을 동반한다(Pilkonis, 1977)고 하였는데, 수줍음은 여러 임상 이론가들에 의해 수치심과 연결 지어 설명된 개념이다(Levin, 1970, 1971; Lewis, 1971; Mayman, 1974). Turner 등(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공포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 외상적 경험과 수줍음 요인이 사회공포증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줍음이나 수치심의 경험이 사회불안의 인지, 행동적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Buss, 1980; Pilkonis, 1977; Watson & Friend, 1969;).

수치심은 양육자가 유아에게 처벌과 비판, 버려짐을 느끼게 하면 유아는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며 자신 속에 숨으며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수치적 자아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한다(Bradshaw, 1988). 이러한 수치심은 초기 중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반복 경험으로 발달되어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부모의 상을 내면화시켜 내적 대상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따라 자기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표상하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표상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수치심을 느끼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다. 수치심이 개인의 발달 과정 동안 성격으로 내면화되면, 개인은 특정 상황에서 수치심을 더욱 자주 경험하는 수치심 경향성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고 만성적으로 부적절감, 무가치감, 무능력감,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Claesson et al, 2002; Kaufman, 1989; Leeming et al., 2004). Loader(1998)은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데,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치심이 높은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아동들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수행을 기대하지만 아동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반복된 수행 실패의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부모는 실망스러운 감정이나 행동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서 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또한, 이들 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치심을 사용한다. Pulakos(1996)와 Abell, Gecas(1997)의 연구에서도 역기능적인 가정환경과 수치심은 관련성이 높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 과보호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강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의 활동을 제한하려 하고 이런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아동들은 자신이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을 회피하고 스스로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장휘숙, 2000). 또한 거부적인 부모는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수치심에 취약하게 한다(Allaman, Joyce, & Crandell, 1972). Gilbert, Allan과 Gross(1996)는 성인대상으로 자신의 부모의 행동을 회고해서 보고해보도록 한 결과, 성인기의 수치심은 부모의 강압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 부모의 과보호와 부관심한 양육태도(Lutwak & Ferrari, 1997) 강압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Chandler-Holtz, 1999). 수치심이 높은 아동의 부모는 사람-초점적인 훈육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고 애정철회와 경멸이나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많이 보이며 아버지의 경우 권위를 앞세워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osenberg, 199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치심 경향성은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생애 걸쳐 성격적 특성으로

유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불안, 수치심 경향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 수치심 및 대인불안 각각에 대한 성차 여부를 밝히고자 한 경험적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데 국내에서는 문혜신, 오경자(2002)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 증상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남녀 모두가 사회적 상황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남들의 평가나 시선을 염두해 두도록 교육되는 문화적인 영향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수치심에 대한 성차를 밝혀온 외국의 문헌과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수치심이 더욱 높다(Lewis, 1971, 1987; Tangney, 1994; Reimer, 1997)고 하였으나 박지현(2007)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윤희(2004) 연구에서 사회공포증 환자에게 있어 행동 억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적 회피 및 불안정도 사이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치심과, 대인불안 사이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므로 청소년의 대인불안에서 성차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며 보다 많은 피험자 및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근거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대인불안, 수치심경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을 통해 대인불안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보았다.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는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

학교 재학 중인 총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학생 302명, 여학생 200명의 총503명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비율

변인	구분	N	%
성별	남	302	60.2
	여	200	39.8
학년	중1	1	0.2
	중2	2	0.4
	중3	18	3.6
	고1	105	20.9
	고2	267	53.2
	고3	109	21.7

## 연구 도구

### 수치심 경향성 척도(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2: PFQ-2)

심중운(1999)이 우리말로 번안한 개인 느낌 질문지(PFQ-2: 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2)를사용하였다. PFQ-2(Harder & Zelma, 1990)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PFQ(Harder & Lewis, 1987)를 수정·보안한 것이다. PFQ-2는 수치심, 죄책감과 관련된 정동적 기술을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Likert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죄책감 경향성 문항 중 심중운(1999)의 요인분석 결과 수치심 경향성으로 묶인 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신주연(2003)의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고, 사용된 11문항이 수치심이라는 단일 요인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치심 경향성 문항에는 ‘당혹감’, ‘우스꽝스러운 느낌(ridiculous)’, ‘유치한 느낌’, ‘혐오스러운 느낌’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1로 나타났다.

### 청소년용 대인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

청소년들이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 Greca (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대인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한상희(2005)가 우리말로 번안하고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a Greca 와 Stone이 1993년에 개발한 SASC-R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 - Revised)을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주관적인 대인불안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SAS-A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다른 사람이 거절할까봐 나랑 무엇인가 같이하자고 제안하기가 두렵다” 등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 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New : 6 문항)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General : 4문항)등 세 가지 하위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평정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총 18점에서 9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부모양육태도 척도(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BI)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허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4문항), 합리적 설명(5문항), 비밀관성(4문항), 과잉기대(6문항), 과잉간섭(7문항), 학대(6문항), 방치(5문항), 애정(6문항)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3문항으로 되어있다.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반응하게 되며 1점에서 4점으로 측정된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합리적 설명’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이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난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방치’는 자녀가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65-.85 범위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산출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 결 과

###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남성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8.1%, 여성 청소년의 수

표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독립변인	$\beta$ (표준화계수)	$R^2$	F
남	감독	-0.018	0.081	4.311***
	합리적설명	0.113		
	비일관성	0.187*		
	과잉기대	-0.159*		
	과잉간섭	0.146*		
	학대	-0.125		
	방임	0.197*		
여	애정	-0.085	0.157	5.616***
	감독	0.174*		
	합리적설명	-0.114		
	비일관성	0.099		
	과잉기대	-0.103		
	과잉간섭	0.170		
	학대	0.084		
방임	0.212*			
	애정	-0.007		

\*  $p < .05$  \*\*  $p < .01$  \*\*\*  $p < .001$

치심 경향성을 1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수치심 경향성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비일관성( $\beta=.18, p < .05$ ), 과잉기대( $\beta=.15, p < .05$ ), 과잉간섭( $\beta=.14, p < .05$ )과 방임( $\beta=.19, p < .05$ )이었다. 여자의 경우, 수치심 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 $\beta=.17, p < .05$ )뿐이었다. 남자의 경우 방임과 비일관성이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자녀를 대할 경우 자녀의 수치심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수치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크게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은 청소년이 느끼는 대인불안의 40.5%( $\beta=.63, p<.001$ )를 설명했으며, 여자의 수치심 경향성은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38.6%( $\beta=.62, p<.001$ )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수치심을 더 느낄수록 대인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성별	독립변인	$\beta$ (표준화계수)	$R^2$	F
남	수치심	0.638***	0.405	206.043***
여	수치심	0.623***	0.386	125.912***

\*  $p<.05$  \*\*  $p<.01$  \*\*\*  $p<.001$

###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대인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비밀관성과 방임이었고, 비밀관성이 방임보다 대

표 4.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성별	독립변인	$\beta$ (표준화계수)	$R^2$	F
남	감독	0.029	0.069	3.791***
	합리적설명	0.058		
	비밀관성	0.271***		
	과잉기대	-0.096		
	과잉간섭	0.014		
	학대	-0.074		
	방임	0.173*		
여	애정	0.009	0.042	2.101*
	감독	0.173*		
	합리적설명	-0.121		
	비밀관성	-0.026		
	과잉기대	0.008		
	과잉간섭	0.136		
	학대	0.012		
방임	0.120			
	애정	-0.062		

\*  $p<.05$  \*\*  $p<.01$  \*\*\*  $p<.001$

인불안을 예측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 있는 독립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만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는, 남자의 경우 6.9%, 여자의 경우 4.2% 였다.

###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했다.

매개효과가 입증되려면 첫째,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독립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의 8가지 하위요인 중 수치심 경향성과 대인불안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비밀관성과 방임이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감독이었다. 따라서, 이 변인에 대해서만 Baron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해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밀관성 변인을 예로 들어 검증이 이루어진 세부 절차를 설명하겠다. 먼저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으로 비밀관성을, 종속변인으로 수치심 경향성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비밀관성을 독립변인으로,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비밀관성과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모든 절차에선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사용되었다.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방임과 여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독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부모의 비밀관성이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비밀관성이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의 비밀관성은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고( $\beta=0.208, p<.001$ ),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부모의 비밀관성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beta=0.260, p<.001$ ). 그리고,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 경향성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비밀관성이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beta=0.260, p<.001$ )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3단계에서는 줄어들었다( $\beta=0.133, p<.05$ ). 그러므로,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은 부모의 비밀관성과 청소년의 대인불안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방치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방치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방임은 남자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eta=0.219, p<.001$ ),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방임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0.205, p<.001$ ).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부모의 방치가 대인불안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 $\beta=0.205, p<.001$ )이었으나,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치심 경향성이 부모의 방임과 자녀의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방임 자체가 대인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수치심에 의해 매개될 때 대인불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감독은 여자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도 부모의 감독은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표 5. 부모의 비밀관성이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eta$ (표준화계수)	$R^2$	F	
1	독립→매개	비밀관성→수치심경향	0.208***	0.040	13.514***
2	독립→종속	비밀관성→대인불안	0.260***	0.064	21.743***
3	독립,매개→종속	비밀관성→대인불안 수치심경향→대인불안	0.133** 0.610***	0.420	100.115***

\*  $p<.05$  \*\*  $p<.01$  \*\*\*  $p<.001$

표 6. 부모의 방치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eta$ (표준화계수)	$R^2$	F	
1	독립→매개	방치→수치심경향	0.219***	0.045	15.059***
2	독립→종속	방치→대인불안	0.205***	0.039	13.228***
3	독립,매개→종속	방치→대인불안 수치심경향→대인불안	0.069 0.623***	0.408	104.639***

\*  $p<.05$  \*\*  $p<.01$  \*\*\*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비밀관성과 방임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밀관성이 방임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비밀관적인 태도와 적절한 물리적, 정서적인 지원을 주지 못하고 방임을 할수록 대인불안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임, 비밀관성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유의한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노경선 외,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감독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을 알수록 대인불안이 높아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행동과 관련하여 성차가 존재하며 성차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과보호와 돌봄 영역에 치중되어 온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밀관성과 방임, 감독을 함께 분석하여 불안에 유의미한 예측인자임을 입증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 가운데 수치심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압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방식(Chandler-Holtz, 1999), 부모의 무관심한 양육태도(Lutwak & Ferrari, 1997),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 것(Cook, 1991)이라는 연구결과와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남자아동의 수치심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서주연, 2006)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방임이 수치심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지각을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욱, 이소희, 김세주, 2001)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볼 때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문정, 2003; 문경주·오경자, 2002; 신금주, 1994; 오성심·이종승, 1982; 이수연, 1985; 이정숙, 1998).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성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남자에게 더 큰 기대를 갖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과잉기대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추론해볼 수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부모의 방임이 수치심 경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에 의해 방임되고 정서적으로 학대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되었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그러한 부정적인 자아의식으로부터 고통받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셋째,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수치심경향성이 대인불안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심 경험에 취약할수록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치심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회적 불안과

우울, 사회적 회피 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 많은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서주연, 2006, 류설영, 1998; 심중운, 1999; Harder & Lewis, 1987; Harder & Zalma, 1990; Lutwak & Ferrari, 1997;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비밀관성과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경향성에 의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수치심경향성은 비밀관성과 대인불안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비밀관성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수치심경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방임과 대인불안은 수치심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부모의 방임 자체가 대인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수치심경향성에 의해 매개될 때 대인불안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치심경향성이 낮게 나타나면 부모의 방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불안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수치심경향성은 부모의 감독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이 수치심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수치심경향성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부모의 감독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수치심경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경향성의 매개효과가 남학생만 나타나는 점을 보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원인을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 친사회적 동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이지선, 유안진, 1999; 한유진, 2004, Timmers, Fischer, Manstead, 199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이는 여아들은 친사회적 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의 과잉간섭이나 과잉기대를 부모의 관심으로 지각(Rohner & Pettengil, 1985)하는 반면

에, 인지적 조절전력을 사용하는 남아들은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치심경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수치심이 학대사건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존감의 관계를 비롯한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매개한다고 나타난 Feiring, Taska와 Lewis의 연구결과(1998)와도 일치한다. 특히, 부모의 방임이 수치심경향성의 완전 매개에 의해 대인불안이 발생된다는 것을 볼 때 수치심경향성에 초점을 두어 수치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대인불안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경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다루지 않았고,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남녀 성차를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이라는 정서적 취약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로써 본연구의 결과가 사회불안의 예방과 실제적인 심리치료 개입에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였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모의 양육태도가 아버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수치심 경향성을 가정하였는데,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사회불안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3), 599-614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

- 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08).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시대, 정서 표현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석 (2008). **완벽주의, 수치심,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설영 (1998). **대인관계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지현 (2007).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주현 (2007). **여자 청소년의 수치심과 사회비교가 사회불안 및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유제민, 최신혜 (2007)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중재효과와 행동억제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55-272.
- 서주연 (2006).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40(4), 605-615.
- 신금주 (1994). **초등학교 아동에서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부적응행동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경향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종은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종은, 이영호(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3), 485-499
- 윤선숙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자기개념, 자의식 및 사회불안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55(3), 557-576.
- 오윤희 (2004). **성차에 따른 행동억제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131.
- 오윤희, 김무경, 오강섭 (2005).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599-614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와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 이정숙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성향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김은경 (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39-356
- 이지선, 유안진 (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이수연 (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철은 (2002).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진 (2009). **수치심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한유진 (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허재홍 (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93-611
- Abell, E., & Gecas, V. (1997). Guilt, shame, and family socialization: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8*, 99-124
- Andrews, B. (1998). Methodologic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shame research. In P. Gilbert, & B. Andrews (Eds.), *Shame :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pp. 39-54). New Y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Arrindell, W. A., Emmelkamp, P. M. G., Brilman, E., Monsma, A., & Brilman, E. (1983).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aetiology of phobic disorders: A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183-187.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e, E., & Morit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Arrindell, W.A., Methorst, G. J., Kwee, G. T., van der Ende, J., Pol, E., & Moritz, J. M. (1989). Expanding the validity of a measure of report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with psychiatric inpatients: Further Dutch experiences with the EMBU.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493-500.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1999). Psychopathology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643-650.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erot, C., Friedman, D. Snidman, N., Kagan, J., & Faraone, S. V. (2001).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673-1679
- Bruch, M. A.(1989). Familial and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social phobia: Issues an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37-39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3.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 Buss, A. 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Freeman
- Chandler-Holtz, D. M. (1999). Relations between negative self-conscious emotions and pro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among adolesc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0*, 1341-1403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1)*, 3-21
- Clark, D. B. (1993).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 alcohol abusers. Paper presented at the Anxiety disorders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Convention, Charleston, SC.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 405-419.
- Feiring, C., Taska, L., & Lewis, M. (1998). The role of shame and attributional style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adaptation to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3*, 129-142.
- Harder, D. H.,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6*, (pp. 89-114). Hillsdale, NJ: Erlbaum.
- Harder, D. H.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729-745.
- Magai, C., & McFadden, S. H. (1995). Shame/Shyness in Personality process. In 「the role of emotions in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Plenum Press, 268-176.
- Mussen, P.H., Conger, J.J., Kagan, J. & Huston, A.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6th ed). New York: Haper & Row Publishers.
- Morris, T.L.,& Masia, C. L. (199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452-458.
- Kauf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London: Routled.
- La Greca, A.M., & Stone, W. L.(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 La Greca, A. M.(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Coral Gables, FL: Auther.
- Last, C. G., Hersen, M., Kazdin, A. E., Orvaschel, H., & Perrin, S. (1991).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928-934.
- Lutwak, N. & Ferrari, J. R. (1997). Understanding shame in adults: retrospective perceptions of parental-bonding during childhood.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 595-598.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Free Press.
- Lewis, H. B. (1971b). Shame and guilt in neurosi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 Stein, M. B., Walker, J. R., & Forde, D. R. (1996). Public speaking fears I a community sample: Prevalence impact on functioning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69-174.
- Scheff, T. J. (1988). Shame and conformity: The deference-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395-406.
- Stemberger, R. T., Turner, S. M., Beidel, D. C., Calhoun, K. S. (1995). Social phobia: Ananalysis of possible development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526-531
- Loader, P. (1998). Such a shame- A consideration of shame and shaming mechanism in families. *Child Abuse Review, 7*, 44-57.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i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ilconis, P. A. (1977). Shyness, public and private, and its relationship to other measure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45*,

- 585-595
- Piers, G., & Singer, M. (1953). *Shame and guilt*.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Pulakos, J. (1996). Family environment and shame: Is there a relationship?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2*, 617-623.
- Rohner, R. P., & Pettengri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 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angney, J .P. (1995). Shame and guil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114-139). New York: Guilford.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469-478.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 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원 고 접 수 일 : 2010.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0. 27.  
게 재 결 정 일 : 2010. 11. 09.

## The Mediation Effects of Shame-proneness t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 Social Anxiety

Park yoon sun     Chae kyu man

Sunshin women's unsive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proneness t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The samples for this study were 502 students recruited from the high schools and middle schools in Metropolitan Seoul area. They were administered with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the 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II, and the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aron and Kenny's (1986) model was calculated to find out mediation effects of shame-proneness tendency of the adolesc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inconsistency, over-expectation and over-control, and neglig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shame-proneness among the male students, while parental strict supervision and neglig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hame-proneness among the female students. Second, the adolescents' shame-proneness tendency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adolescent social anxiety. Third, the inconsistent and negligent parenting showed statistically negative influence on the social anxiety among the male students. Among the female students, only Parent's strict supervision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anxiety. Fourth,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and shame-proneness in rela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samples. For example, the shame-proneness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 between parental inconsistency and adolescent's social anxiety, but complete mediation effect between parental negligence and adolescent social anxiety in case of male students, while the shame-proneness did not show the mediation effect between interpersonal anxiety and parental supervision among the female students. Lastly, the results showed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anxiety among the adolescents. The mediation effect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adolescents.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discussions and implication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 shame-proneness, parenting attitude, interpersonal anxiety*